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22. 1. 4(화) 16:00~18:4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남경희(관리처장), 류태경(경영대학 공동대표), 박귀천(학생처장), 박인휘(총무처장), 박지호(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배소현(예산팀장), 백승현(의과대학 공동대표), 신하윤(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소연(음악대학 공동대표), 정제영(기획처장), 한지수(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인문과학대학 공동대표), 황진선(대학원 학생회장)		
불참자 (0명)			
안건	교비회계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2022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부속병원회계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2022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 의결		
내용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이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위원 전원 동의로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위원장(교무처장)의 제안으로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 위원장이 회의 개회에 앞서 차기 회의일정을 정할 것을 제안하다. 위원장이 2022학년도 등록금 납부일정상 등록금 책정 기한이 1월 13일임을 설명하고, 차기 회의일로 1월 11일을 제안하다. -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차기 회의일시를 1월 11일 오후 3시 30분으로 확정하다. - 위원장이 전년도에 합의된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이후 10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 안건 심의에 앞서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생요구안을 차기 등심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는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및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을 설명하며 등심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환기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요구안은 학생처를 통해 관할부처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가능함을 설명하며, 학생처를 통한 별도의 협의 절차를 안내하다. 아울러,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사항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소통할 것이라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생요구안 중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본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요구안은 등심위 심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설명하며 학생처를 통해 별도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다만,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금일 회의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등심위 구조와 관련한 요구안을 언급하며, 전년도와 같이 구조 관련 등심위를 추가 개최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우선 학생처를 통해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1.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가. 교비회계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

-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2021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2021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2021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운영비 증가요인 중 빅데이터/AI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비의 사용 내역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빅데이터/AI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중 일부는 이미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베타서비스 테스트 중이라고 답하다. 특히, 학생의 학사관리 지원을 위해 챗봇을 개발 중이며 사이버캠퍼스 서버 확충 및 빅데이터 기반 인터페이스 변경도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액의 증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본교가 매년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세무조사 결과 일부 과세가 이루어져, 우선 납부예산은 편성하되 향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교내 방역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상세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정.후문 통제 및 건물 출입문 방역관리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체온측정기, 소독물품 등 방역물품 확충으로 인한 비용 등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ECC 삼성홀 등 외부인 출입이 잦은 교내 대관시설을 언급하며, 외부인 출입과 관련한 대응지침이 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ECC 건물의 경우 대관시설이 있는 지하 4층 양쪽 출입문에 인력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체온측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ECC에서 외부인이 마스크 없이 취식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덧붙여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ECC 1번 출입문에 스피드게이트가 미설치되어 외부인 출입이 잦은 부분을 염려하다. - 관리처장이 해당 출입문에는 체온측정 및 방역관리를 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이미 카드키가 설치되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다.
--	--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고정자산수입 증가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목동의학관 매각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매각은 교육부의 승인이 필수 선행되어야 하므로 매각 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교육부의 승인이 확정된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 학생회로부터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유형고정자산 계정과 관련하여 기자재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포스코관, 신세계관 등 각 건물에 유연학습공간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조형대 이화아트센터전시장과 도예홀 관련 보수공사 및 실습용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답하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공간을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해가고 있음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외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단과대학별 교육환경 개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과대학 예산편성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이에 기획처장이 단과대학에 배정된 예산은 각 대학의 상황 및 대학 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단과대학별로 행정실을 통해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학생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하다. 예산팀장이 2021학년도 공용 컴퓨터실습실 노후기자재 전면 교체 등의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Adobe, Zoom 등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 예산은 어떤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지원 예산은 정보통신처의 기타학생경비 계정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전년도 등심위에서 Adobe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융합콘텐츠학과의 사례를 들어 부.복수 전공생 및 호크마 교양대학 학생 중 해당 전공 진입 예정생 등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가 가능한지 질의하고, 이에 학생처장이 주무부서인 정보통신처에 확인하여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별 차등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Adobe 사용 여부가 등록금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본교의 교육비 환원율은 약 200%이며, 이는 등록금 수입 대비 이미 2배의 교육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항목별 비용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장학금 기금인출이 당초예산 대비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장학금의 변동은 휴학생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등록률 감소와 연동된 영향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2022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및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2022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이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2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인건비 중 특별강의료가 추경 대비 증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시반 관련 예산도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고시 관련 특별강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고시반 관련 예산은 2018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재개발원에서 시설 개선에 3년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였던 예산을 향후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전달하다. 덧붙여, 학생처장이 상세내용은 학생처를 통해 인재개발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경영대학 고시실의 냉난방 시설 관련 문제는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단과대학 고시실장과 논의하도록 안내하다. 또한, 학생처장이 고시실 예산과 관련하여 소속 대학장을 통해 학생처 및 인재개발원과 협의할 수 있다고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Frontier 10-10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학과의 선정 여부, 지원 방식, 기금 재원을 문의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1월 중 결과발표가 예상된다고 답하고, 본 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 초빙 및 활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충, 연구운영 인건비 및 장학금 등 참여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의 형태로 집행되며, 지출 항목별 대응 기금이 인출된다고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Frontier 10-10 사업을 통해 장학금

예산이 증액되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기본적으로 다소 증액되거나 학생 등록
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교내장학금 증가분 중 대학원 장학금의 증가 규
모가 대학원 충원을 상승 대비 저조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기획처장이
Frontier 10-10 사업을 통해 장학금도 확대되지만, 연구참여를 통한 연구운영
인건비 등의 형태로 대학원생의 수혜가 확대될 것이라고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증액 편성된 장학금 예산의 지원 형태에 질의
하고, 이에 학생처장이 연구활동 관련 장학금 증가, 대학원 성적 장학금 확대,
이화복지 장학금 보완 등의 방면으로 지원이 확대됨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고정자산매각수입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하고, 이에 예산팀장이 교육부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으로 인한 수입은 건물 리모델링, 신축 등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재취득 용도로
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금년도 기숙사 운영 정상화시 수용인
원이 증가하면 방역비용이 동반상승하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고, 이에 기획처장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이 해소되어 기숙사 운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한 법인 수
익사업 확대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본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지원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있
고, 사학연금 관련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립대는 많지 않으며 본교는
부담률이 타사립대 대비 높은 편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교비회계의 2021학년도 추경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
대행, 경영대학 공동대표, 음악대학 공동대표, 의과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
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
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1학년도 추경예산
(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2학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경영대학 공동대표, 음악대
학 공동대표, 의과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2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참석 위원 13명 전원이 찬성하여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21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 2022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 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다.

나. 부속병원회계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략기획팀장, 재무팀장, 예산파트장이 배석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의료원의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이어 위원장의 요청으로 양 병원의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도 차례로 보고하다.

- 위원장이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총무처장이 서울병원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서울병원이 서울지역 대학병원 중 최초로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본교 병원의 확고한 위상과 의료서비스의 우수성 입증하였다고 답하다. 의료원은 과거 MERS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병원 건물 설계 시 구획별 공조를 분리하는 등 전염병 관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지정병상 수에 대해 정부로부터 100%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므로 재정적 기여가 가능하다고 부연하다.

- 외부위원이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병원 대비 본교의 상대적 이점은 무엇인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병원의 운영 규모 유지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타 대학병원들은 거점전담병원 지정을 위해서 기존 가동병상 중 1/3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해야만 하나, 본교 서울병원 은 개원 이후 가동병상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어서 유희병상을 이용하게 되므로 거점전담병원 지정으로 최대 병상가동률 달성을 향한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이어서 전략기획팀장이 거점전담병원 지정 취소 시에도 이후 6개월 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보장됨을 부연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비뇨기병원 개원, 로봇수술 등의 특징점을 활용한 여성암병원 확장, 목동병원 상급병원 유지, 웰니스센터 수익성 증가,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향후 병원 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2023년부터 학교전출금 지급 계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다.

- 병원 관계자 전원이 퇴장하고, 위원장이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부총학생 회장 직무대행 1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예산팀장,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경영대학 공동대표, 음악대학 공동대표, 의과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12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 회계이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을 이결하다.

• 의결사항

-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 2022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 폐회

- 위원장이 2차 회의를 1월 11일(화)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함을 확인 하고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2년 1월 4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하윤	신하윤	위 원	백승현	백승현
	위 원	남경희	남경희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류태경	류태경	위 원	이소연	이소연
	위 원	박귀천	박귀천	위 원	정제영	정제영
	위 원	박인휘	박인휘	위 원	한지수	한지수
	위 원	박지호	박지호	위 원	황진선	황진선
위 원	배소현	배소현				
작 성 자	예산팀 하 지 연 (환)지연					